

<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『현대미술 강좌』>

10. 앵포르멜(L'Art Informel)

시기: 1940년대 후반 - 60년대

주요작가: 장 뒤뷔페(Jean Dubuffet 1901-85)

장 포트리에(Jean Fautrier 1898-1964)

조르주 마티유(Georges Mathieu 1921-)

니콜라스 드 스틸(Nicolas de Staël 1914-55)

안토니 타피에(Antoni Tàpies 1923-)

알베르토 부리(Alberto Burri 1915-95) 등

(1) 앵포르멜의 등장 배경

▪ 차가운 추상(구성주의, 데 스테일 등)에 대한 반동 작용:

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근대 정신에 대한 실망과 반항 상징

▪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영향(상호 영향).

▪ 사르트르(Jean-Paul Sartre, 1905-80)를 중심으로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: 개인주의적, 주관주의적 성향 추구.

▪ 소쉬르(Ferdinand de Saussure, 1857-1913)의 언어학의 영향

언어는 기의와 기표로 구성. 기의와 기표는 필연적, 본질적, 자연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상징기호 시스템.

⇒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을 등가로 놓고 무정형에서 의미를 찾고자 함

(2) 앵포르멜의 의미

▪ 1951년 프랑스 이론가 미셸 타피에가 <또 다른 미술 Un Art Autre>라는 전시를 개최하고 동명의 책 출간(1952년). 전시와 책을 통해 그는 질서(order)와 구성(composition)이라는 전통적인 추상 개념과 급진적인 단절을 꾀하는 전후 유럽 회화의 경향을 정의 내리고자 함.

▪ 이들 전후 유럽 화가들의 반기하학적(anti-geometric)이고 비구상적인 경향과 이들이 추구하는 표현적인 즉흥성, 형태의 헐렁함(looseness)을 강조하기 위해서 '아트 앵포르멜'이라는 단어를 사용. 불어 informel 은 영어의 unformed 또는 formless에 해당, 즉 무정형을 의미.

(3) 앵포르멜 경향

▪ 기하학적 추상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측면에 대응하여 서정적 측면을 강조.

▪ 색채에 중점을 두고 보다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력을 갖는 표현주의적, 서정적 추상 예술 추구.

▪ 강한 제스처, 반복적인 형태, 붓글씨와 같은 붓 자국 등 같은 시기 미국에서 전개된 추상표현주의와 흡사한 면이 많음.

- 구상·비구상을 초월하여 모든 정형을 부정하고 공간이나 마티에르(matière, 재료또는 재질, 재료에서 오는 독특한 재질감 포함)에만 전념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려는 함.
- 기성의 미적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조형의 의미를 만들어내려 했으나, 무정형·무한정한 자유가 오히려 표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 내포.
- 프랑스를 기점으로 스페인, 이태리 등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으며 이어 한국, 일본 등 아시아로도 퍼져 국제적인 양식으로 자리매김.
- 타슈즘(Tachisme): 1950년대 프랑스에서 앵포르멜과 함께 사용되던 용어. 불어로타슈(tache)는 영어 stain에 해당, 즉 잉크 얼룩, 번짐을 의미. 앵포르멜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, 앵포르멜 중에서도 특히 물감을 무작위로 흘리거나 뿌리는 화풍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.

(4) 한국의 앵포르멜

시기: 1950년대 말-60년대

주요 작가: 윤명로, 박서보, 김형대, 전성우, 정점식, 정창섭 등

유럽의 앵포르멜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이성, 합리성, 객관성, 과학 등 서구가 추구해 온 진보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출발한 반면, 한국의 앵포르멜은 구체제를 탈피하려는 근대의식의 표상 또는 상징.

(5) 일본의 앵포르멜

시기: 1950년대 중반-60년대

주요 작가: 카즈오 시라가(Kazuo Shiraga 1924-), 지로 요시하라(Jiro Yoshihara 1905-72) 등